

# “목포권 중심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해야”

## 광주전남연구원 “수산업 생산액 2025년 5조원 가능”

전남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을 집중하고, 수산기자재 제조와 레저·관광, 요식업 등 관련 산업을 융·복합하는 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목포권에 중심시설을 두고, 각 시·군에 중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2조원대인 전남도 수산업 생산액을 10년 뒤인 오는 2025년까지 5조원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내다봤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양수산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동주 선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식품 가공량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118만 2000t으로,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은 1조8794억원으로 전국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생산액이 낮은 이유는 수산물 가공률이

15%로, 경남(34%), 부산(27%)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13%의 비중이지만 가공 및 수출산업 육성으로 생산액은 1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어 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단순생산에서 고차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수산기자재와 레저·관광, 요식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선 군 지역에는 일본 나가사키 어항의 수산가공단지(가공시설, 어시장, 냉동·냉

장창고, 연구지원 시설)를 모델로 하는 지역별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목포권의 경우 연구기관과 대학 등 비교적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있고 접근성이 유리한 점을 고려해 영국 험버(Humber)지역 수산물클러스터를 모델로 고차가공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수산기자재 단지를 비롯해 기자재진흥원과 수출지원센터 및 수산식품안전인증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중국 수출전진기지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 노면전차방식 ‘트램’ 제안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담회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노면전차 방식인 트램(tram)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7일 개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면 전차 방식인 트램을 대안으로 내놨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원안인 자심도 공법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공사비가 약 4천억원 증가한다”며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와 이용자 불편 등 여러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의 본질은 고품격 사회 도래에 대비한 도심재생 방안 마련”이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수단인 트램이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명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 방식의 대중교통수단은 정류장 설치 제한이 없고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며 “대중교통수단을 선정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친화 방안, 장기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트램의 장점은 도로면에 설치돼 건설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적게 들고 운영도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광주 시청이나 광주시의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아 17일 자정(북한시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은 참배하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 민선6기 광주시 투자유치 7000억 돌파

### 74개사와 협약 체결, 4385명 고용 창출

민선6기 들어 광주시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74곳에 투자규모는 72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투자율은 74건 중 41건으로 55.4%, 금액으로는 1602억원(22%)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438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투자금액은 업체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 기업들은 ▲자동차 분야가 23

곳(2197억원) ▲에너지 19곳(2267억원) ▲가전 9곳(947억원) ▲광산업 5곳(175억원) ▲의료산업 5곳(235억원) 등이다.

특히 대우위니아(주), (주)세방산업, (주)LS산전, 이베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잇달아 유치해 향후 지역 내 관련 기업과의 협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업체를 분석할 때 역점 사업인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주력산업 외에도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축인 에너지, 의료 등 신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힘입어 아

직 마무리되지 않는 진공산업단지 분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밸리 구축 등 신산업 동력을 발판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분야 투자인센티브로 임차보증금 상환과 고용·교육훈련보증금 지원, 평동3차단지와 남구 지방산업단지 등 경쟁력 있는 도시형 산업단지 적기 조성에 도 나설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시장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며 “광주에 진출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광주시의회, 강운대 전 시장 ‘깜코 수사’ 요청 논란

### 일부 시의원 “총선 정략적 이용” 반대

### 강 전 시장 “이미 무혐의 처분”

광주시의회가 ‘깜코(GAMCO·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사건과 관련해 강운대 전 광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성명서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7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깜코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 전 시장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대한 정치적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깜코대표 김모씨 혐소심판결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광주시였고, 강 전 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에 비춰볼때 하

를 촉구한다. 강 전 시장은 이미 전입 시장으로 현 시의회 의정행위 권한 밖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성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모 위원장 명의로 카톡을 통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성명서와 함께 ‘보완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카톡이 왔지만, 애초 성명에 반대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위원장에게 일임했으며 카톡을 통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성명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운대 전 시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강 전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와 (소위) 깜코위원회는 깜코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면서 “본인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과 명예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깜코사건은 3년 전에 발생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시의회 특위조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 2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결과 이미 그 진상이 철저하게 드러났고 당시 시장이었던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지로 판시한 사실에 비춰볼때 하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광주시 의원 전체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 남구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13년 시의회 깜코특위에서 강 전 시장의 검찰수

## “내년부터 맨손어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권욱 전남도의원

내년부터는 맨손어업인 등에게도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1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남도 2016년도 예산안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 2억원이 신규 반영됐기 때문이다.

권욱(목포2) 의원은 맨손어업인 등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 관련 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수협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양식보험 등 3

종만 있었는데 이번엔 어업인안전보험이 추가됐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대상은 맨손어업인과 양식어업인 근로자, 어선원보험가입제외 어선원, 염전어업인, 어업인의 배우자 등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영세 어가들이다.

권욱 의원은 “도내에는 아직도 시설이 열악한 어업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눈모양빌딩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